

박도원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교수
행정법

진도별모강

-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능력 배양
- 선택형 지문의 키워드 암기 훈련
- 사례형 답안지 스킬 및 고득점 포인트 훈련
- 합격생들이 인정하는 수험전문가의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스킬 완성

일 정

2018. 10. 3(수) ~ 10. 10(수), 총 7 회, 월~토 강의

시험 오전 8시 ~ 9시 30분

강의 오전 9시 45분 ~ 12시 15분

교 재

- 진도별 모의시험 문제 + 해설자료 (제공)
- 답안지용 압축자료(제공)

수 강 특 전

- 족집게 기출예상 사례문제 제공
- 최고답안 강평 동영상강의 제공
- 출제예상 문제 선별 자료 및 관련 동영상강의 제공

강 의 목 표**1. 선택형, 사례형 자료 완벽정리**

- 3 순환은 수험장에 가져갈 선택형, 사례형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순환입니다.
- 양을 절대로 늘리면 안 되고, 그동안 보던 자료를 시험 전날 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하며, 빠른 시간 내 볼 수 있도록 단계별 키워드 정리가 끝나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정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충해야 합니다. 보충 순서는 기출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며, 여력이 있으면 법전협 모의고사를 추가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출지문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반복학습을 통해 시험마판에 볼 수 있도록 수험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선택형 지문 정리

- 진모의 객관식 선지는 기출지문과 법전모의고사 객관식 지문 중에서 출제가능한 판례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직 7급·9급과 국회 8급 행정법 객관식 문제 중 사례형 객관식 문제를 선별하여 변호사시험에 출제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모의고사 문제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에 가장 부합하는 객관식 선지를 통해 선택형 고득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키워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행정법 정리가 부족한 수험생은 최우선적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정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정리가 이미 끝난 수험생은 법전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모의고사 선택형 지문은 출제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풀어봐야 합니다.
- 다만, 올해 핵심지문총정리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지문이나 정지문 핸드북 정리가 끝난 수험생이라면 해당 교재에 기출과 모의고사 중요지문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리한 자료를 복습하면서 이번 모의고사 지문을 추가로 정리하면 됩니다.

3. 사례형 쟁점 정리

- 답안지 쓰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은 ‘변시 답안지 쓰는 법’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카툰 ‘도원행정법 연구소’ 복습동영상란), 유튜브에 ‘박도원 행정법’으로 검색하여 변시 관련 동영상을 숙지해도 좋습니다.
- 이번 진모에서는 출제가능한 쟁점을 엄선하여 출제합니다. 다만, 종합문제의 특성상 진도와 상관 없이 관련쟁점이 부수쟁점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 진모에서 답안지 실력을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중요쟁점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진모의 사례문제에 대한 ‘3단계 정리자료’를 배부합니다.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법은 강의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의를 통해 배우는 ‘TRS 학습법’을 통하여 모의고사 사례를 짧은 시간 내 복습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행정법 진도별 모강

4. 최고답안 복습동영상 제공

- 각 모의고사의 최고답안에 대한 강평을 복습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이에 앞서 ‘답안지 쓰는 법’ 동영상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복습동영상을 통해 답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전답안지의 양식과 사안포섭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습 동영상을 활용하여 사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답안지를 구성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습 동영상은 ‘도원행정법 연구소’ 카페에 날마다 올리겠습니다.

5. 추가 사례문제를 통한 완벽대비

- 이번 진모는 7회에 불과하여 모든 사례를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가능한 쟁점을 선별하여 추가 사례문제를 제공합니다. 강의에서 A급으로 중요도를 체크한 쟁점이 실전에서 90%이상 출제된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실전 대비 쟁점의 중요도 체크와 관련 사례문제는 여러분에게 사례 고득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사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답안지에 현출하는 연습을 한다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학 습 전 략**1. 실전무기 만들기**

(1)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은 완벽히 정리하라!

- 기출지문은 다시 출제 가능하므로 기출지문과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은 완벽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출지문의 동일판례가 다른 쟁점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었고, 표현만 바꾸어 출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는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판례문구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신판례는 3개년 판례특강의 자료로 충분합니다.

(2) 중요 판례 문구는 숙지하라!

- 선택형 지문은 결론만 알면 되는 지문과 사례형에서 쓸 표현이므로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판례 문구도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의 결론만 알면 선택형 문제를 맞힐 수 있으므로 내용 암기까지는 시간상 무리입니다. 다만, 이미 기출된 사례형 쟁점과 출제가능한 사례형 쟁점과 관련된 판례는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례형 객관식 문제를 무리 없이 맞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중요판례도 결론과 논거를 키워드 위주로 정리합니다.

(3) 시간과의 싸움! 키워드를 정리하라!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형 지문의 키워드를 정리하고 틀리게 바꾸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선택형 지문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관련 판례의 정확한 문구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합니다. 판례 문구는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판례의 논거를 활용하여 사안포섭을 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판례의 논거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답안지에 현출해야 합니다.

2. 사례형 학습전략

- 사례형은 쟁점파악이 핵심입니다. 중요쟁점과 부수쟁점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고, 특히 쟁점의 판례의 결론과 논거를 숙지하여 답안지에 현출하고, 기급적 판례의 결론에 따라 사안해결을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쟁점에 대한 판례만 정확히 현출해도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형에서 숙지된 판례를 현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택형 지문에 대한 학습은 주관식 사례와 기록형에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례형 객관식의 경우 판례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선택형과 사례형은 유기적인 학습이 된다는 것도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A급 출제가능한 쟁점은 완벽하게 정리하라!

- 올해에도 A급으로 찍은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A급 주제에서 올해 출제된 쟁점을 제외하고 타시험에서 올해 기출된 쟁점을 추가하여 A급을 선별합니다. 이러한 A급 주제는 학설, 판례, 검토를 답안지 분량으로 압축하여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포섭 훈련을 통해 해당 쟁점에선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반복해야 합니다. 답안지 분량으로 볼 때 학설을 장황하게 쓸 수 없으므로 학설은 이름위주로 현출해도 좋으나, 판례는 반드시 논거까지 2~3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B급 출제가능한 쟁점은 판례를 위주로 정리하라!

- B급 쟁점은 최대한 판례 결론과 논거를 위주로 서술하고 사안포섭하도록 준비합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A급 주제도 판례 위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례의 논거와 결론에 따라 사안포섭에 주력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3) 논점추출 훈련을 강화하라!

- 사실은 사례형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문의 내용을 읽고 질문의 취지를 찾지 못한다면 논점이탈 내지는 논점누락으로 열심히 쓰고도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형에선 쟁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훈련과 그 쟁점의 판례 결론과 논거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만으로도 효율적인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번 스터디에서 훈련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이번 순환에서 암기훈련이 끝나면 논점추출훈련이 쉬워질 겁니다.

3. 해설지를 활용하라!

- 각자 교과서를 막판까지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면 최상이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3순환 이후에는 정리되지 않은 교과서는 부담만 될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과서는 모르는 부분을 찾아보는 부교재로 활용하고 모의고사 해설지를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여 반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때 정리하여 반복하지 않는다면 3순환 이후에 복습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모의고사 문제만이라도 정확히 정리하고 숙지한다는 마음가짐이 좋습니다.
- 해설지는 선택형 위주로 정리하고, 사례형은 나중에 답안지 분량의 압축자료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러한 압축자료로 사례형을 정리하되 이해되지 않는 부분만 해설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사례형의 답안지 분량의 압축자료에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판례 위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이때 설문 내용을 압축하고, 목차를 정리한 추가자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짧은 시간에 사례의 논리적 구조와 흐름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이번 순환에선 이러한 자료활용법을 습득하여 단기에 복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박도원 교수 강의계획서**행정법 진도별 모강****마 치 며**

- 변시는 모의고사만 제대로 정리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소화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모의고사 해설지를 제대로 정리하고 누적적으로 반복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모의고사 해설지가 낯설게 느껴져 다시 복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많은 시간을 투자한 모의고사 해설지를 제대로 복습하지 못하고 수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 행정법 강의에서는 단계별 정리와 단계별 복습을 통해 모든 자료를 누적적으로 복습하여 이후에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모의고사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연습보다는 복습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습은 그동안의 자료를 빠르게 스캔하여 마치 실전처럼 시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기억력 테스트로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더라도 나중에 복습이 되지 않으면 수험자식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연습으로 시험을 보고, 복습에서는 자료를 가공하고 누적적으로 복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강의주제
1	10월 3일(수)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내용,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의 특수성
2	10월 4일(목)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계획,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3	10월 5일(금)	공법상 계약, 단계적 행정작용,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4	10월 6일(토)	국가배상, 행정상의 손실보상, 행정심판
5	10월 8일(월)	행정소송의 개설, 항고소송, 소송요건의 개설,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피고적격, 행정소송의 가구제
6	10월 9일(화)	행정소송의 심리·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의 종류·판결의 효력, 당사자소송
7	10월 10일(수)	행정조직법, 특별행정작용법